

새로운 법인으로 새 출발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는 커다란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丁亥年)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는 민법에 의해 설립 운영된 법인 체제에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이하 'RT진흥법'이라 함)에 의한 법인으로의 전환을 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 받았다.

이로써 우리협회는 진흥법에서 정한 각종 이용 진흥 사업 및 RI 등 사용 기관 육성 활동을 보다 적극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위탁 사업 수행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장기적으로 정부의 RT 진흥 종합 계획 및 정책 추진을 뒷받침해야 할 사명과 역할도 감당해야 될 책임 또한 갖게 되었다.

이는 협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사의 공동 발전의 전기가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들 수 있다.

협회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이어져 왔다. 1985년 58개 회원사와 개인 회원 25명이 모태가 되어 출발한 협회는 23년이 지난 지금 600여 단체 회원사와 560여 개인 회원이 소속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다.

그간 협회는 국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의 진흥과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 문화에 대한 홍보에 매진하여 왔다.

2008년에도 협회는 전기한 바와 같이 RT진흥법에 의한 신법인 전환에 따라 새로운 사업들을 준비되고 있다.

무자년 한해는 2007년도부터 시작되어 2011년에 완성될 제2차 협회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협회의 주요한 사업의 방향을 다음

과 같이 5가지의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 ▲ 방사선 등 이용 기관의 대표 단체로서의 역량 집중
- ▲ 미래 수요 지향적인 RT (Radiation Technology) 전문 인력 양성 및 안정적 연구 사업 운영
- ▲ 종사자 안전 증진 및 보건을 위한 지원 체계 정립
- ▲ RT교류 기반 확대를 위한 국제 협력 다변화
- ▲ 협회 발전을 위한 기반 확충

방사선 등 이용 기관의 대표 단체로서의 역량 집중

협회는 방사선 등 이용 기관의 대표 단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 회원을 위한 지원 사업은 더욱 강화하고 신규 회원 확충에 노력할 것이다.

우선 회원간의 친목 도모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

야별 간담회, 회원사 CEO 및 RT 분야 지도자 모임을 운영하고, 방사선 관련 면허자 모임을 더욱 활성화 할 것이다.

또한 회원에 대한 협회의 기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술 정보의 다변화를 꾀하며 액체 폐기물 처리 지원, 무적 선원 자진신고 접수 대행 등 분야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정부 정책 건의 등의 역할도 성실히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협회는 방사선 이용 기관을 대표하여 2008년에도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선 2006년부터 차세대 방사선 이해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초·중등 교원의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방사선 이해의 날(가칭)'을 제정 추진함으로써 방사선 이용 기술의 안전성과 유용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임할 것이다.

미래 수요 지향적인 RT 전문 인력 양성 및 안정적 연구 사업 운영

RT(Radiation Technology)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협회는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원자력 인력 양성 사업과 연계하여 원자력공학과와 방사선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RT 실무 교육을 실시하며, 전문가의 능력 함양을 위하여 방사선 차폐 해

석 코드 등 수요자의 요청을 적극 수렴한 전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사선 관련 면허 소지자 및 방사선 작업 종사자를 위한 법정 교육의 품질개선에 아울러 진행된다.

특히 면허자의 자질 향상과 능력 함양을 위하여 현장 실무 이미지 등을 활용한 시각적인 교육효과에 주력하며 면허자 모임과 전문 강좌를 연계한 최근 RI 이용 경향에 맞는 커리큘럼을 재구성해 면허자 보수 교육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연구 사업 분야에서는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I-131 치료 병동의 배출 기준 완화를 위한 연구, 산업체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을 위한 기술 재교육 사업 및 의료 기관에 대한 내부 피폭 측정·평가 등을 중심으로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종사자 안전 증진 및 보건을 위한 지원 체계 정립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2004년 협회에 설립된 방사선종사자정보중앙등록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방사선종사자정보중앙등록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RIS(Radiation workers Information System)에는 국내 모든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방사선 방호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방사선 방호 기록은 개인 및 환경 영향평가의 중요한 판단 기초

자료로서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 방사선량 연보를 제작하여 업종별, 기관별, 작업 업무별로 분류된 국가 피폭 기록지표를 작성할 것이며, 현재 인·허가를 폐지한 기관의 기록만이 보존되어 있는 건강 진단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앞으로 도입될 기록 준위(선량 하한 판독치) 도입에 대비한 시스템 개선 작업과 이용자의 선호도를 분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가공하는 등 협회의 RIS(<http://ris.ri.or.kr>)의 사용자를 위한 작업 환경 개선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RT 교류 기반 확대를 위한 국제 협력 다변화

금년 5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5일간 서울 웨다톤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제6차 세계동위원소대회가 'Global Wellbeing with Isotope'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동 대회는 과학기술부와 한국방사선동위원소협회와 공동 주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방사선동위원소협회(JRIA), 중국방사선동위원소협회(CIRA), 한국원자력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등의 후원으로 전 세계 약 40여개국 1,0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회는 동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05년 5월



제6차 세계동위원소대회 포스터.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는 민법에 의해 설립 운영된 법인 체제에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이하 'RT진흥법'이라 함)에 의한 법인으로의 전환을 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 받았다.

한국 유치권을 확정된 이후부터 빈틈 없는 준비를 해오고 있다.

세계동위원소대회는 자국 제품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한 국제적 홍보, 판촉을 목적으로 창설된 대회로, 특히 캐나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의 동위원소 분야 학자들의 모임에서 출발하여 오늘날에는 방사성동위원소(RI) 이용 관련 전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정착되었다.

1995년 중국의 베이징에서 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세계 동위원소 분야 전문가들이 RI 등 이용에 관한 다양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2년 우리 협회의 주창으로 한·중·일 3국 간 협력회의(CJK Congress)가 정례화 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의 3개국 RI협회가 방사선 이용의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한 행사로 2008년에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 강구하기 위한 실무자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남북한 간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역시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 협회 회원사의 주도로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방사성 의약품 전달이 2007년 말까지 총 30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협회는 일방적인 방사성 의약품의 제공으로 끝내지 않고 북한과 방사선 관련 기술 정보 교류를 위하여 2008년부터는 협회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매월 정기적인 방사성 의약품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평양 과기대와 연계, 핵의학기술교육지원센터(가칭)의 설립을 모색중에 있다.

협회 발전을 위한 기반 확충

우리 협회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RT진흥법에 명시된 사업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한편, 협회의 장기적인 발전 기반 마련과 회원의 자긍심 고취 및 협회 공간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협회 회관 확보에도 적극 나

설 것이다.

서울, 대전, 정읍 지역 등 협회 회원사와 함께 하고 회원의 편의 및 발전성을 고려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선정될 것이다.

맺음말

이밖에도 앞으로 협회가 추진하여야 할 사업들이 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해외 홍보, 매년 시행하고 있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연차대회」를 방사선 관련 유관 기관과 연대하여 진정한 방사선 이용 분야의 교류 및 진흥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그리고 핵의학 및 유통 분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사성 의약품 관련 제도 및 애로 사항 개선에 대한 노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협회는 지난해 수립된 제2차 협회중장기발전계획(2007년-2011년)에 따라 당면 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하나씩 이루어나가고 있는 중이다. 매마침 정부도 협회에 새로운 법인 설립 인가로 힘을 실어주었다.

앞으로 산적한 현안 문제도 많겠지만 23년간 쌓아 올린 경험과 축적된 지혜로 현안 과제를 해결해 나가며 명실공히 방사선 등 이용 기관의 대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협회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